

## 친지의 사회적지원, 부부특성, 어머니의 양육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f Friends and Relatives, Couple's Characteristics,  
and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upon Infant Development\*

임현주(Hyun Ju Lim)<sup>1)</sup>

최항준(Hang Jun Choi)<sup>2)</sup>

최선녀(Seon Nyeo Choi)<sup>3)</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various factors, the social support of friends and relatives, couple's characteristics, and the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and their impact upon infant development.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data was taken from 2078 infants who were born in 2008 and their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1st Korean Children Panel Survey of the Child-Care Policy Research Institute. The data collected were processed statistically by means of a structural model and the fit of the model was also found to be very good.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social support of friends and relatives and couple's characteristics did indeed impact upon an infant's development, with the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having a mediating effect. The direct effect of the social support of friends and relatives on infant development was positive and the results of the effect were the same even when taking into account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The direct effect of a couple's characteristics on the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was negative but the result of it was also positive when taken in conjunction with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Key Words** : 친지의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of friends and relatives), 부부특성(couple's charac-

---

\* 본 논문은 2011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구두 발표 논문임.

<sup>1)2)3)</sup> 배재대학교 강사

**Corresponding Author** : Hyun-Ju Lim,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aichai University, 439-6, Doma-dong, Seo-gu, Daejeon, 302-735, Korea  
E-mail : misungkid@hanmail.net

teristics), 어머니의 양육 특성(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영아 발달(infant's development).

## I. 서 론

영아시기에는 신체적·언어적·정서적 영역에서 급진적 발달이 나타난다. 누워있지만 가능했던 상태에서 걸을 수 있게 되고, 주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이를 탐색하고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도를 하게 된다. 영아기에 일어나는 탐색의 과정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인 울기, 손짓하기, 몸짓, 미소짓기를 통해 정서를 나타내다 점차 양육자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게 된다(지성애·홍혜경, 2001). 양육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영아는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Owens, 1998/2001).

이렇듯 영아는 환경에 의해 자극받고 양육자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 영아의 발달에 있어서 양육자의 양육태도와 관계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연실(2010)도 영아의 발달에 있어 가족구성원과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특성은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라 하면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에 있어 어머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녀와 어머니는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자녀 발달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가 있었다. 김혜순(2010)은 부모의 양육과 자녀의 친사회성에 대해, 김세루·홍지명·홍혜경(2010)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

을 주는 가족체계에 대한 Luster & Okagaki(1993)의 연구도 있었다. 이렇듯 여러 연구를 통해 아동의 발달은 부모의 양육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발달이 부모의 양육특성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영향 받음을 밝힌 여러 연구가 있었다. Sameroff(2010)는 아동발달에 관한 부모-자녀 교류모델에서 아동과 부모는 전 일생에서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관계에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박성연, 2011). 정옥분(2002)은 발달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타나는 양적 혹은 질적인 변화라 정의하며 이러한 발달은 단일측면에서 일어나기보다는 개인의 인지, 심리, 신체, 사회적인 여러 방면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Cannella(1997/2002)는 인간의 사고와 행위가 몇 단계로 나아가는 진보에 초점을 두어 인간발달을 이야기하며, ‘발달’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어서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특정 가치체계와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즉, 영아의 발달은 영아를 둘러싼 주변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어머니의 양육특성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영아의 발달’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진다는 Vygotsky(1998/2009)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특성과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해 살폈다. 이를 위해 아동패널도구 중에서 사회·문화적 환경을 알아볼 수 있는 변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변인은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를 둘러싼 가정변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부특성, 영아의 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지원과 부부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러한 영향력이 영아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대사회의 가정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는 살아오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행동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양육행동은 세대 반복과 계승의 기능이 있어 자신이 경험한 인적 관계, 정서, 행동양식을 통해 부모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Benson, Larson, Wilson, & Demo, 1993). 예전의 원가족 제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세대 간의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의 기회는 핵가족화라는 가족제도의 변화로 인해 점차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가족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현대사회 부모들의 자연스러운 선행경험을 통한 교육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에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과 경험이 충분치 않은 부모들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더 이상 개인이 혼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현대의 부모들은 이러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우선 친지의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영아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친지의 사회적 지원은 가족, 친구, 이웃 등의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지원받는 도움이다(Norbeck, Lindsey, & Carrieri, 1981).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할 때 주위의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데 심리

적 안정을 주는 정서적 지원, 경제적 도움과 일손 등의 실질적 도움을 받는 도구적 지원, 필요한 정보에 대한 도움을 받는 정보적 지원, 같이 놀러가거나 방문하는 등의 사교적 지원이 이에 포함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를 낮춘다(문혁준, 2004), 부모가 양육의 과정에서 만족감을 얻고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chran & Brassard, 1979). 또한 박성연·도현심·정승원(199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올바른 자녀양육방법과 자녀의 긍정적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즉,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부모됨의 가치관 정립에 영향을 미치고 양육스트레스를 낮추어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지원과 함께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영아의 발달을 살펴기 위해 선정된 변인은 부부특성이다. 부부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영아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bidin(1992)은 모가 느끼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Shaffer(2000)는 모가 인지하는 결혼만족도는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김기현(2000)은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고 했다. 즉,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부간의 친밀함의 정도가 높을수록 양육방식에 있어 온정성과 반응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Kitmanm(2002)은 부부특성과 자녀의 발달과의 관련성을 밝혔는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자녀의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양육에 있어 주목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여성의 노동시장 합류와 핵가족

화라는 시대적 변화로 인해 남성의 가족역할 수행에 대한 당위성으로 변화되며 새로운 관점이 부여되기 시작했다(고선옥·이영환, 2006; Makee & O'brien, 1982). 또한 김광웅·이인수(1998)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을 경우 자녀의 사회·정서 영역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낸 결과를 바탕으로 아버지의 적극적 역할수행을 지지하면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Lewis & Lamb(2003)도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친밀감이 자녀의 적응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즉, 여러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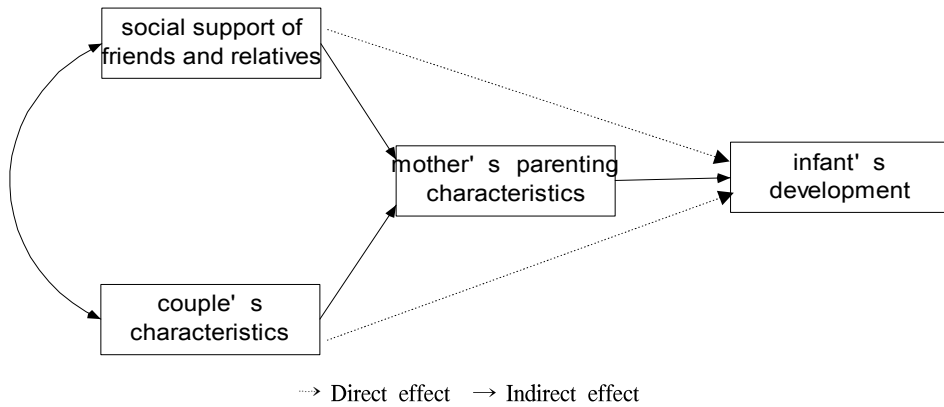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특성이다. 양육은 자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정행동을 말하는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발달은 깊은 관계가 있어서 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는 공통점은 부모에게서 긍정적 영향을 받은 아이들은 발달에 있어서도 긍정적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권희경, 2001).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특성의 하위변인으로 양육방식, 부모됨의 태도, 양육스트레스를 택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양육방식은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양육스타일로 영아에게 미치는 중요 환경요인에 해당되며,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관계적 교환의 정도를 의미한다(Bornstein, Tamis-LeMonda, Pascual, Haynes, Painter, Calperin, & Pecheux, 1996). 어머니가 온정적 태도를 보여주는 온정성과 실제적 반응의 정도를 보여주는 반응성을 통해 나타난 양육방식은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머니가 수용적이면 영아는 스스로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나타내었다

(Garner, Jones, & Miner, 1994). 장영애·이영자(200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친사회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Klaus & Kennell(1976)은 이러한 영아의 발달과 양육의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수용 혹은 거부하는 태도는 부모 자녀간의 유대감의 형성, 심리적 안정과 관계있다고 하였다. 즉, 양육방식에 있어서 어머니가 영아의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고 영아는 이러한 자극의 경험을 통해 인지·사회·정서 행동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

영아의 요구에 무관심하거나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부모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한 부정적인 자극은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을 저해하였다(최석란, 2007).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역할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 부모의 기대와 자녀가 다를 때 경험하는 스트레스, 자녀의 행동 특성에서의 나타나는 여러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하는데(Abidin, 1992), 양육스트레스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양육스트레스에는 자녀의 발달 단계적 특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김기원·도현심·김상원·이선희, 2010). 부모됨의 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의 부모역할 수행에 관련하여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형성에 기초가 된다(유안진·김연진, 1997).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아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친지의 사회적 지원, 부부특성, 어머니의 양육 특성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구조모형으로 검증하기 위해 세운 가설모형은 아래와 같다.



<Figure 1> Hypothesis model of the impact on infant development

<연구문제 1> 친지의 사회적지원, 부부특성, 어머니의 양육특성이 영아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아동패널 1차년도(2008)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육아정책 연구소 한국아동패널 (PSKC) 1차년도(2008)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육아정책 연구소 한국아동패널의 표본 1단계는 2006년도 분만건수 500건 이상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의료기관에서 추출되었으며, 2단계에서 2008년 3개월간 산모를 대상으로 조사에 동의한 2,561가구를, 3단계에서는 패널참여의사가 있는 2,078가구를 최종패널로 확정하는 층화단계 표본 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적용하여 선정되었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모든 연구도구는 육아정책 연구소

#### 1) 친지의 사회적 지원

이재림과 옥선화(2001)의 사회적 지원척도와 조병은·서동인·신화용·정현숙(1998)의 사회적 지원척도를 기초로 한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친지의 사회적 지원은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사교적 지원의 4가지 변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정서적 사회적 지원의 내용은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등의 총 2개 문항이며, 도구적 사회적 지원은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등의 3개 문항이며, 정보적 사회적 지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등의 3개 문항이며, 사교적 사회적 지원은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간다.’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2개의 문항은 5점 리커트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지의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친지의 사회적 지원의 문항수와 신뢰도는 Table 2와 같이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lt;Table 1&gt; General characteristics

Subjects	Content	Classification	N	%
Infant	Sex	Male	1,057	50.9
		Female	1,021	49.1
	Months	Below 4 months	154	7.4
		5 months	1,250	60.2
		6 months	293	14.1
More than 7months		381	18.3	
Mother	Age	Below 25	99	4.8
		26~30	788	37.9
		31~35	919	44.2
		More than 36	271	13.0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643	30.9
		2-Year college	590	28.4
		4-Year university	714	34.4
		Graduate school	115	5.5
		No answer	15	0.7
Father	Age	Below 25	23	1.1
		26~30	365	17.6
		31~35	945	45.5
		More than 36	659	31.7
		No answer	19	0.9
		Missing value	67	3.2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569	27.4
		2-Year college	420	20.2
		4-Year university	804	38.7
		Graduate school	200	9.6
		No answer	18	0.9
Living area		Big city	830	39.9
		Middle city	834	40.1
		Borough	414	19.9

## 2) 부부특성

결혼만족도는 Schumm, Nicols, Schectman, & Grigsby (1983)이 개발한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를 Chung(2004)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RKMSS)을 사용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어머니(아버지)로서의 아내(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의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모와 부가 느끼는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양육참여는 남편이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내용은 ‘남편은 아기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남편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의 총 4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나타내는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양육참여

<Table 2> Number of questions and reliability of sub-variables

Sub-variables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alpha$
Emotional support	2	.720
Instrumental support	3	.794
Information support	3	.861
Social support	4	.817

<Table 3> Number of questions and reliability of sub-variables

Sub-variables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alpha$
Mother's marriage satisfaction	4	.902
Father's marriage satisfaction	4	.913
Husband's parenting participation	4	.738

가 높은 것이다. 각 항목의 Cronbach  $\alpha$ 는 다음과 같이 매우 높아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 3) 어머니의 양육 특성

양육방식에 대한 검사도구는 Bornstein 등 (1996)이 개발한 양육스타일(PSQ : 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을 사용하였는데 문항의 내용은 '나는 내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만족 시켜준다.' 등의 반응성을 알 수 있는 3개 문항과 '나는 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의 온정성을 알 수 있는 3개 문항이다. 이러한 문항은 실제로 행하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적인 교환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사회적 양육유형 9개 문항 중 6개 문항이 선택되었다.

부모됨의 태도는 이삼식 · 정운선 · 김희경 · 최은영 · 박세경 · 조남훈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원래는 8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도구였으나, 자녀 양육의 부담이 매우 큰 출산 직후의 가정에는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1개의 문항인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 않는다.'를 제외한 것을 아동패널에서 사용하였다. 내용은 '부모가 되는 일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 등의 정서적 가치를 나타내는 3개 문항과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등의 도구적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 4개로 구성되어 있어 총 7개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됨의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 부모가 갖는 심리적 부담감을 알 수 있는 지표로 Abidin(1983, 1990, 1995)의 Parenting Stress Index(PSI), Crnic, Greenberg (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 Thornberg의 Mater-

<Table 4> Number of questions and reliability of sub-variables

Sub-variables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alpha$
Parenting style	6	.820
Parenting attitude	7	.747
Parenting stress	10	.840

&lt;Table 5&gt; Number of questions and reliability of sub-variables

Sub-variables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alpha$
Communication	6	.643
Gross motor	6	.651
Fine motor	6	.649
Personality · Sociality	6	.583
Problem-solving ability	6	.615

nal Guild Scale (MGS)를 기초로 김기현·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척도를 신나리 등(2007)이 수정 보완한 아동패널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등의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양육방식, 부모됨의 태도, 양육스트레스의 Cronbach  $\alpha$ 계수는 아래와 같이 높아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 4) 영아의 발달

영아의 발달 특성의 검사도구는 4~6개월의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 Oregon대학에서 개발된 것이다. ASQ(Age & Stage Questionnaire)를 허계영, Squiret, 이소영·이준식(2006)이 수정한 K-ASQ(Korean-Age & Stage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총 5가지 발달 영역으로 하위변인은 의사소통,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문제해결 능력, 개인사회성이다. 부모는 유아가 행동을 수행할 때에는 ‘예’, 행동을 보이기 시작할 때는 ‘가끔’, 아직 행동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아니오’로 평정하였으며 ‘예’는 10점, ‘가끔’은 5점, ‘아니오’는 0점으로 점수화하였다. 각 영역에 6문항씩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  $\alpha$ 는 아래와 같이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Amos 7.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각 변인간의 신뢰도 및 적합도 지수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구하여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친지의 사회적 지원, 부부특성, 어머니의 양육 특성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와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와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친지의 사회적 지원, 부부특성, 어머니의 양육 특성, 영아 발달의 전반적인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전체 사례수는 2,078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하위 변인간 사례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응답자가 질문지에서 무응답한 항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응답 사례는 결측치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달라진 사례수는 다음과 같다.

또한 Table 7을 통해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친지의 사회적 지원 → 어머니의



<Table 6> Means and Stand Deviation

Variables	Sub-variables	M	SD	N
Social support of friends and relatives	Emotional support	4.16	.72	2073
	Instrumental support	4.19	.66	2020
	Information support	4.10	.70	2069
	Sociable support	4.08	.68	2066
Couple's characteristics	Mother's marriage satisfaction	3.81	.77	1858
	Father's marriage satisfaction	4.27	.68	1651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3.58	.81	1859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Parenting style	4.05	.51	1860
	Parenting attitude	3.60	.57	1861
	Parenting stress	2.74	.62	1861
Infant's development	Communication	8.92	1.50	1992
	Gross motor	9.52	1.13	1992
	Fine motor	9.10	1.47	1992
	Personality · Sociality	9.06	1.40	1992
	Problem-solving ability	9.34	1.22	1992

<Table 7> Correlation table

		Social support of friends and relatives				Couple's characteristics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Infant's development				
		Emotional support	Instrumental support	Information support	Sociable support	Mother's marriage satisfaction	Father's marriage satisfaction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Parenting style	Parenting attitude	Parenting stress	Communication	Gross motor	Fine motor	Personality · Sociality	Problem-solving ability
Social support of friends and relatives	Emotional support	1														
	Instrumental support	.739(**)	1													
	Information support	.638(**)	.710(**)	1												
	Sociable support	.675(**)	.767(**)	.719(**)	1											
Couple's characteristics	Mother's marriage satisfaction	.162(**)	.141(**)	.171(**)	.146(**)	1										
	Father's marriage satisfaction	.096(**)	.091(**)	.108(**)	.087(**)	.381(**)	1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115(**)	.129(**)	.161(**)	.131(**)	.560(**)	.191(**)	1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Parenting style	.171(**)	.172(**)	.172(**)	.170(**)	.224(**)	.177(**)	.232(**)	1							
	Parenting attitude	.129(**)	.120(**)	.105(**)	.111(**)	.220(**)	.058( *)	.145(**)	.204(**)	1						
	Parenting stress	-.183(**)	-.181(**)	-.163(**)	-.179(**)	-.349(**)	-.145(**)	-.254(**)	-.410(**)	-.206(**)	1					
Infant's development	Communication	.140(**)	.137(**)	.174(**)	.115(**)	.044	.066(**)	.017	.105(**)	.027	-.101(**)	1				
	Gross motor	.135(**)	.090(**)	.145(**)	.087(**)	.016	.045	-.002	.061( *)	.036	-.041	.446(**)	1			
	Fine motor	.093(**)	.082(**)	.144(**)	.098(**)	.031	.020	.002	.088(**)	.063(**)	-.094(**)	.434(**)	.426(**)	1		
	Problem-solving ability	.174(**)	.164(**)	.204(**)	.162(**)	.006	.035	.026	.109(**)	.028	-.086(**)	.500(**)	.473(**)	.518(**)	1	
	Personality · Sociality	.119(**)	.096(**)	.140(**)	.092(**)	.007	.007	.014	.093(**)	.052( *)	-.080(**)	.447(**)	.435(**)	.606(**)	.517(**)	1

\*p < .05. \*\*p < .01.

양육 특성 → 영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와, 부부특성 → 어머니의 양육 특성 → 영아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모형의 경로 유의성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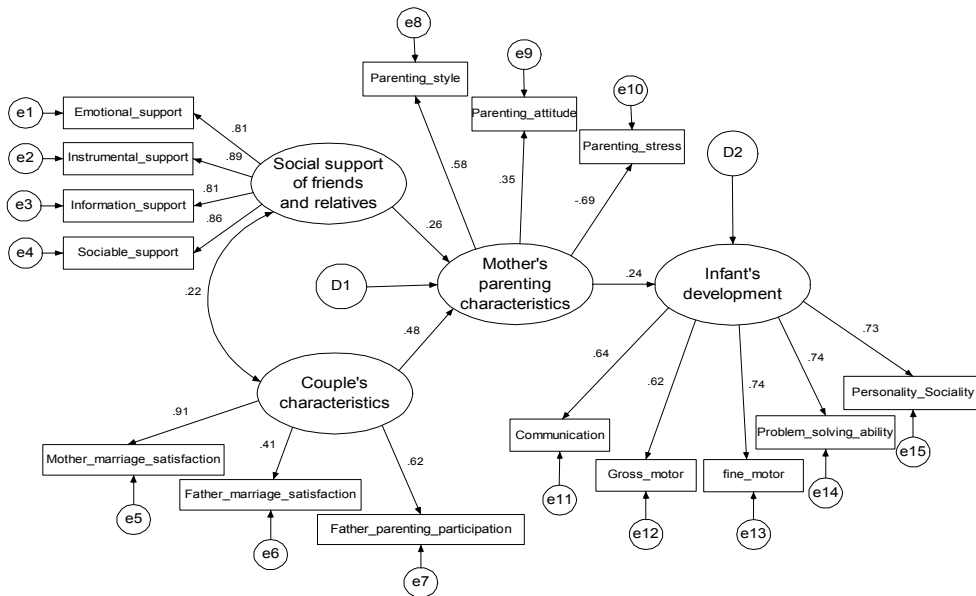
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최대 .767로 지나치게 높지 않아 독립변수들 간의 지나친 상관관계로 인해 추정치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2. 친지의 사회적 지원, 부부특성, 어머니의 양육 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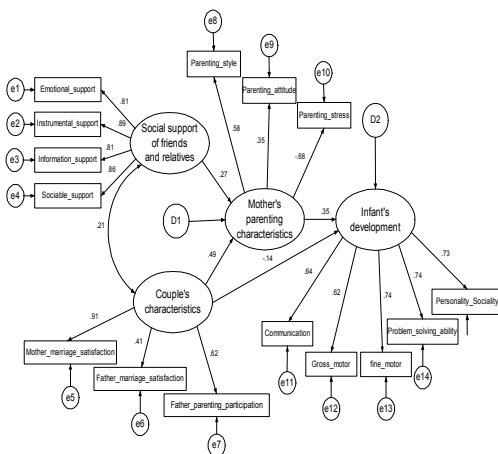
1) 제안모델과 경쟁모델 1, 경쟁모델 2, 최종 모델의 적합성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친지의 사회적 지원, 부부특성이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칠 때, 어머니의

양육 특성이 매개한다는 이론에 기초한 가설 모형에 따라 제안 모델을 설정하여 그 적합성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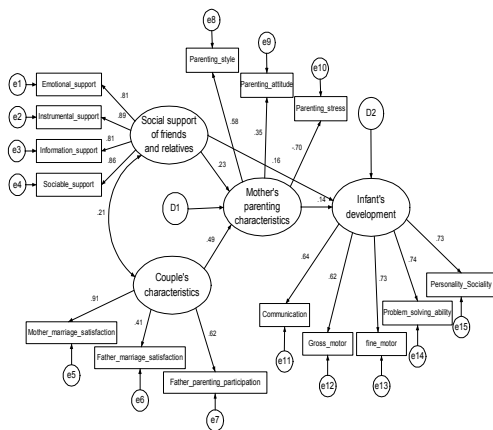
제안모델을 기반으로 경로수정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경쟁모델 1, 2와 경쟁모델 3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경쟁모델 1(Figure 3)은 부부특성이 영아의 발달로 가는 직접효과가 포



<Figure 2> Suggestive model of the impact on infant development



<Figure 3> Competitive model 1



<Figure 4> Competitive model 2

합된 경로의 모형이며 경쟁모델 2(Figure 4)는 친지의 사회적 지원이 영아의 발달로 가는 직접 효과가 포함된 경로의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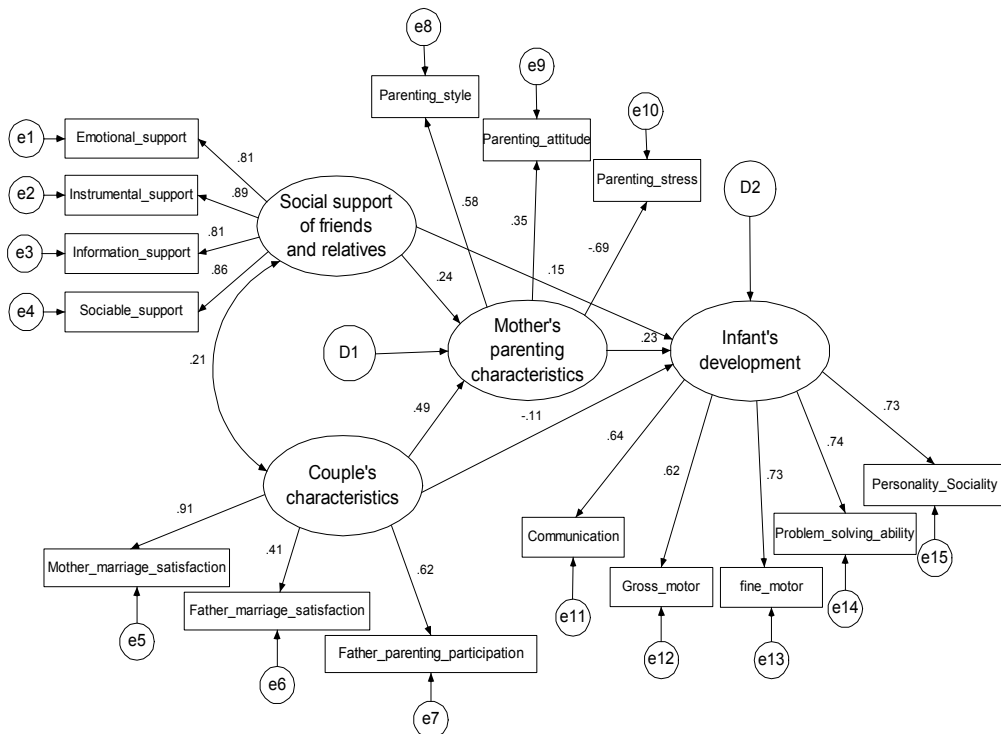
또한 경쟁모델 3은 제안 모델에서 친지의 사회적 지원과 부부특성이 영아발달로 가는 직접 경로가 포함된 모형으로 아래의 Figure 5에 나타내었다.

각 모델의 적합도 결과는 Table 8에 나타내었다. 제안모델과 비교하여 경쟁모델 1과 경쟁모델 2는 자유도에서 1이 적으며 경쟁모델 3은 제안 모델과 비교할 때 자유도에서 2가 적다. 자유도가 1 차이날때  $\chi^2$ 의 값이 3.84이상 차이 나면 유의하여 모델을 택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본 연구에서의 경쟁모델 1과 경쟁모델 2, 경쟁모델 3의 자유도에 따른  $\chi^2$ 의 값은 각각 그 이상이 차이 나서 어떤 모델을 택하여도 무리가 없었다(허명희,

2001).

각 모델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적합도 지수는 절대적합지수( $\chi^2$ , RMSEA), 증분적합지수(NFI, TLI, CFI)이다. 절대적합지수는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RMSEA는 표본크기에 덜 민감하며  $\chi^2$ 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증분적합지수는 기초(독립)모델에 대한 제안모델의 적합도 비교하는데 각각의 지수의 해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NFI, TLI, CFI는 수용범위가 0~1까지이며 0.9이상 이면 양호하다. RMSEA는 0.1~0.08이면 보통, 0.08~0.05이면 양호, 0.05이하이면 모형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Browne & Cudeck, 1993).

제안모델, 경쟁모델 1, 제안모델 2, 제안모델 3의 각 적합도가 매우 우수하였다. 전체적인 적



<Figure 5> Competitive model 3

<Table 8> Testing result of the fitness of the model

Model	$\chi^2$	df	NFI	TLI	CFI	RMSEA
Suggestive model	355.9	86	.967	.964	.975	.039
Competitive model 1	345.1	85	.968	.965	.975	.038
Competitive model 2	326.1	85	.970	.968	.977	.037
Competitive model 3	318.7	84	.970	.968	.978	.037

합도를 고려하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경쟁모델 3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2) 최종모델 분석

친지의 사회적 지원, 부부특성, 어머니의 양육 특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선택된 최종모델에 기초하여 각 변인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경로계수(regre-

ssion weights)를 Table 9에 제시하였다. CR = 1.965 이상이어야 유의하므로 Table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친지의 사회적 지원과 영아발달, 부부특성과 영아발달, 어머니의 양육 특성과 영아발달, 친지의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양육 특성, 부부특성과 어머니의 양육 특성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방정식 특성상 모델의 적합도가 매우 우수하

<Table 9> The path coefficient of the final model

		Estimate	S.E.	C.R.	P
Social support of friends and relatives	→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118	.016	7.593	***
Couple's characteristics	→ characteristics	.515	.049	10.539	***
Social support of friends and relatives	→	.183	.035	5.318	***
Couple's characteristics	→ Infant's development	-.278	.096	-2.887	**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	.543	.113	4.824	***
	→ Sociable support	1.000			
Social support of friends and relatives	→ Instrumental support	1.007	.020	51.580	***
	→ Emotional support	.992	.022	44.476	***
	→ Information support	.976	.022	44.764	***
	→ Father parenting participation	1.783	.122	14.670	***
Couple's characteristics	→ Mother marriage satisfaction	2.490	.182	13.645	***
	→ Father marriage satisfaction	1.000			
	→ Parenting style	1.000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 Parenting attitude	.672	.061	11.007	***
	→ Parenting stress	-1.466	.096	-15.269	***
	→ Gross motor	1.000			
Infant's development	→ Fine motor	1.550	.062	24.796	***
	→ Problem solving ability	1.303	.052	24.971	***
	→ Communication	1.382	.061	22.629	***
	→ Personality sociality	1.464	.059	24.707	***

\*\*p < .01. \*\*\*p < .001.

므로 다른 경로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Kline, 2004).

경로계수의 표준화계수(estimate)를 이용하여 경로 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 간의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 총효과(total effect)를 구하여 Table 10에 제시하였다.

Table 10을 기반으로 친지의 사회적 지원과 영아발달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친지의 사회적 지원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5.4% 간접효과는 5.4%, 총효과는 20.7%로 나타났다. 친지의 사회적 지원은 영아발달에 직접효과나 간접효과에 있어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었다. 직접효과가 긍정적인 것을 통해 친지의 사회적 지원이 영아발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친지의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 특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매개변인의 긍정적 작용으로 간접효과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이 작기는 하였으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직접효과와 긍정적인 간접효과가 더해져 총효과를 상승시키고 있었다. 친지의 사회적 지원이 영아발달로 가는 경로에 있어서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특성은 부분 매

개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부부특성과 영아발달간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1.2% 간접효과는 11.2%, 총효과는 0.1%로 나타났다. 즉 부부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긍정적 작용과 부정적 작용이 비슷한 질댓값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부적인 직접효과와 정적인 간접효과를 합한 총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타난 총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부부특성의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부정적으로 나타난 부부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특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였다.

이에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특성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부부특성이 어머니의 양육 특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49.1%의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양육 특성은 영아 발달에 22.9%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부부특성이 영아발달로 가는 경로에 있어서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특성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특성은 영아 발달에 22.9%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Table 10>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among variables of the final model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ocial support of friends and relatives	→ Infant's development	.154	.054	.207
Couple's characteristics	→ Infant's development	-.112	.112	.001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 Infant's development	.229		.229
Social support of friends and relatives	→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235		.235
Couple's characteristics	→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491		.491

#### IV. 결 론

본 연구는 친지의 사회적 지원, 부부특성, 어머니의 양육특성이 영아 발달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지의 사회적 지원이 영아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양육특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통해 이웃, 친척, 또는 아는 이들로부터 받게 되는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특성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며, 영아의 긍정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나 선택의 상황에서 어머니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 대신 의논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지원받음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특성에 긍정적 작용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지원을 받은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영아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이라 하였다(김의철·홍천수·이정권·박영신, 2007). 즉, 사회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충분한 도움을 받는 관계 속에서 형성된 양육방식은 온정성과 반응성이 더하여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원이 부모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박성원·도현심·정승원(1996)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이로서 개인이 형성하게 되는 아비투스(Habitus)는 사회적 관계에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도움을 통해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Chomsky(2003/2007)는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의 구축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의사소통은 한 사람의 원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이

해시키려는 노력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즉, 인간 개인의 발달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영향받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의 발달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살펴야 하며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한 발달은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며 사회의 형태에 따라 달라져야한다고 한 Vygotsky(1978/ 2009)의 연구와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자녀 사이에 원만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문화적 관습과 그에 따른 능력이 전수-창조-변환의 과정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남을 강조한 Rogoff(2003)의 연구, 인간은 서로 인정하지 않거나 서로 희생하지 않거나 강한 결속으로 연결되지 않고는 함께 살 수 없다고 한 Durherm(1964)의 연구와 본 연구의 공통점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개인의 발달은 이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영향을 받으므로, 개인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부부의 결혼만족은 어머니의 양육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부가 결혼생활에 있어 만족하면 가족구성원의 기능이 안정되어 부모역할에 있어서도 원만한 양육수행을 할 것이다. 이는 결혼만족도와 긍정적 양육행동의 관련성을 밝힌 Belsky & Isabella(198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즉, 어머니의 결혼만족의 상태가 어머니의 온정성과 반응성을 더하여 긍정적 양육을 행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부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특성을 매개로 하여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칠 때 부부특성은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행하는 자녀양육은 결혼생활 적응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 어려움을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됨

의 태도와 양육특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영아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특성이 긍정적인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녀양육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정서적 가치와 이러한 자녀를 갖는 것이 사회적 의무에 해당된다는 도구적 가치가 작용된 것이다. 이러한 자녀가치의 부모됨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긍정적 양육특성은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었던 것이다.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이다.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자녀의 발달과의 관련성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고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어머니는 부모역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버지의 양육역할수행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녀양육은 어머니만의 몫이 아니며 자녀 양육은 부부 공동의 의무라는 양육책무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첫 번째 논의에서 영아의 발달은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받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변인이 영아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영아의 발달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차적 환경인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유경훈·강순미, 2010). 또한 부모의 역할에 따라 가정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영아의 자발성이 강조되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선행조건은 원만하고 화목한 부부관계일 것이다. 즉, 부부의 만족한 결혼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은 영아의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특성은 영아발달에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에서 이루어지는 어머니와 영아의 스킨십은 매우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행동이다. 안아서 젖을 먹이거나, 업거나 안고서 일을 하고, 잠잘 때도 옆에 두고 같이 자는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와의 상호작용하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박성연, 2011). 즉, 양육방식에 있어 온화하고 온정적이며 영아의 요구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형태로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긍정적 작용으로 인해 영아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던 것이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애정적일수록 자녀의 사회적응력이 높고 부모가 거부적이면 자녀의 정서가 부정적이며 불안정한 행동을 나타내는 등의 영아의 사회적 능력과 양육방식의 관련성을 밝힌 이외영(2002)의 연구와 본 연구의 시사점은 일치하였다. 즉, 양육환경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어머니의 친근하고 밀접한 스킨십을 통한 상호작용은 양육방식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와 영아의 관계에 있어 좋지 못한 상호작용으로 발생된 양육스트레스는 영아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육스트레스와 역기능적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을 밝힌 이경하·서소정(2009)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통해 어머니의 좋지 못한 상태가 영아에게 전달되는데(Hertenstein, 2002),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를 가진 어머니가 영아의 발달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부모-자녀 간에 이루어진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는 영아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

감할 수 있는 여러 지원의 방법과 양육지식에 대한 부모교육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친지의 사회적 지원과 부부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특성을 매개로 영아의 발달에 이르는 경로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찾아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2008년 데이터를 수집하여 2011년에 통계처리된 한국아동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어진 연구도구를 사용하다보니 설문 문항이 적은 항목도 있어 본 연구에 제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1차년도 2008년 출생아 가구이다. 즉, 연구대상의 월령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라는 연구대상의 한계점을 지니 영아발달의 하위변인인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능력, 개인·사회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러나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 누적되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유아의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부모의 양육과 자녀의 발달에 관한 유용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늠할 수 있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나 부모의 양육관, 형제·자매 관계 등의 여러 변인을 포함하는 연구와 영아의 애착과 부모-자녀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뜻 깊은 것으로 생각되어 후속연구로 제안해본다.

## 참 고 문 헌

- Koh, S. O., & Lee, Y. H. (2006). The Influences of Fathers' Creative Characteristics and Child-Learning Beliefs on Children's Creativity.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7*, 1-19.
- Gwon, H. K. (2009). The Relation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the care of Their Children, Mother's Parenting Behavior,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of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3*(4), 79-98.
- Kim, K. W., & Lee I. S.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 Rearing Involvement of Fathers and Children's Social-Emotional Competence. *Korea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9*(2), 1-11.
- Kim, Ki. W., Dohm H. S., Kim, S. W., & Lee, S. R.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mployment, Maternal Job Characteristics, Spous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Korea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31*(5), 101-113.
- Kim, D. U. (2008). *AMOS A to Z The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ccording to the procedure*. Seoul : Hakhyunsa.
- Kim, S. R., Hong, J. M., & Hong, H. K. (2010). The Relations among Mother's Behavior toward Rearing, Mother's Rearing-stress and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9*(2), 113-132.
- Kim, S. C., & Kwak, K. J. (2005). The relations among mothers' touch patterns and mothers' internal states, and touch situations in infants at 6 months : On the depression, anxiety, parenting stress, feeling of touch, and self-concept.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21.
- Kim, U. C., Hong, C. S., Lee, J. G., & Park, Y. S. (2005). Factors influencing health and



- quality of Life among allergy and asthma patients : With specific focus on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health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Social Issues*, 11(2), 143-181.
- Kim, H. S. (2010).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Frequency and Parental Demand for Mature Behavior on their 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7, 1-19.
- Moon, S. B. (200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ed to the structure. Seoul : Hakjisa.
- Moon, H. J. (2004).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Journal of Korea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11), 109-122.
- Min, H. Y. (2010). The Mediation Effect of Affection-Rejection Parenting in relationships between Mother' report of Marital conflicts and Preschoolers' behavioral and emotional control. *Th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5), 1-12.
- Park, S. Y. (2011). South Korea in a society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changing the meaning, *2011 Conference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1-22.
- Park, S. Y., Doh, H. S., & Jung, S. W. (1996). *Parent-child relationship : the ecological approach*. Seoul : Hakjisa.
- Bae, B. R. (2009). *Amos 17.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principles and practices*. Seoul : Chunglam.
- Seo, J. H., & Kim, J. K. (2010). Impact on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factor analysis. *1st Conference Korean Children Panel Survey*, 322-344.
- Lew, K. H., & Kang, S. M. Effects of Parents' Personality, Rearing Behavior and Home Supports on Children's Creativity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18(3), 121-133.
- Yoo, A. J., & Kim, Y. J. (1997). Parent education. Seoul : Dongmoonsa.
- Lee, K. H., & Seo, S. J. (2009). Effects of Infant and Matern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aternal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Maternal Self-Efficacy,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Infant Development. *The Journal of Korea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3), 87-102.
- Lee, Y. S.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6(3), 63-90.
- Lee, Y. M., Min, H. Y., & Lee, Y. J. (2005). The Impact of parents' Marital Conflict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College Students'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5), 53-62.
- Lee, O. Young. (2002). effect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on child's society.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Lee, J. S. (2003).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Mothers' Childrearing Stres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3(3), 5-19.
- Lee, J. S., & Cho, H. S. (2005). The Influence of Family and Work Roles on Preschoolers'

-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9(2), 43-58.
- Jang, Y. A. (2009). A Study of Behaviors of Preschool Children, and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ing Involvement of Mother and Father.
- Jeon, I. O., & Lee, K. O. The effects of mother-related factors on the self-efficacy of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169-187.
- Chung, O. B. (2002). *Child Development*. Seoul : hakjisa.
- Chi, S. A., & Hong, H. K. (2001). *Infant Infant Life guidance*. Paju : Yangseowon.
- Chae, Y. Moon., & Kim, Y. H. (2010). Combination of Parents' Attachment and Parenting Styles Related to Young Children's Social Ability.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 Association*, 14(4), 29-38.
- Choi, S. R., & Kim, Y. S. (2007) Student Teachers' Perceptions of Children's Conflict Context in Child Care Center.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6), 147-165.
- Huh, M. H. (2001). *Mathematical Statistics Lecture*. Seoul : Freeacademy.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1-412.
- Aries, P. (1963). Centuries of childhood : 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New York : Knopf.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Isabella, R. A. (1985).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to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hange Following the Birth of a baby : A Retrospective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 342-349.
- Benson, M. J., Larson, J., Wilson, S. & Demo, D. H. (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663-672.
- Bornstein, M. (2009). *Toward a model of culture-parent-child transactions*. In A. Sameroff (Ed.), *The transactional model of development : How children and contexts shape each other*(pp. 139-161).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C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19(2), 347-367.
- Badinter, E. (1981). *The myth of motherhood : An historical view of the maternal instinct*. London : Souvenir.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8(9), 350-372.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London : Hogarth.
- Cannella, S. G. (2002). *Deconstruc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 social justice and revolution*. (Translation. Yeu, Hae-Ryung). (pp. 209). Seoul : Changjisa. (The original publication 1997).

- Cochran, M. M., & Brassard, J. A. (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601-616.
- Chomsky, N. (2007). *Chomsky democracy education*. (Translation. Lee, jong-in). Seoul : Sidaebooks. (The original publication 2003).
- Durkheim, E. (1964), *The Division of labour in society*. New York : Free Press.
- Eyer, D. E. (1992). *Mother-infant bonding : A scientific fiction*.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Garner, P. W., Jones, D. C., & Miner, J. L. (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ers :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 622-637.
- Hertenstein, M. J. (2002). Touch : Its Communicative Function in Infancy : *Human Development, 45*, 70-94.
- Hunt, J. (1961). *Intelligence and experience*. New York : Ronald.
- Klaus, M. & Kennell, J. (1976). *Mother-infant bonding*. New York : Wiley.
- Kline, R. B. (2004).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rd ed.). New York : Guilford Press.
- Kitzmann, K. M. (2000).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subsequent triadic family interactions and parenting. *Development Psychology, 26*(1), 3-13.
- Luhman, N. (1979). *Trust and Power*. Chichester UK : Wiley.
- Luster, T., & Okagaki, L. (1993). *Paraetning :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kee, L., & O'brien, M.(1982). *The father figure*. London and New York : Tavistock Publications.
- Minton, C., Kagan, J. & Levine, J. (1971).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Maternal control and obedience in the two-year-old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42*, 1873-1894.
- Norbeck, J. S., Lindsey, A.m., & Carrieri, V. L. (1981).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social support. *Nursing Research, 30*, 264-269.
- Owen, R. E. (2001). *Language development : An introduction*. (Translation. Lee, seung-bok). Seoul : Sigma Press. (The original publication 1998).
- Sameroff, A. (2010). A unified theory of development : A dialectic intergrationa of nature and nuture. *Child Development, 81*, 1, 6-22.
- Schulz, M. S., Cowan, P. A., Cowan, C. P., & Brennan, P. T.(2004). Coming home upset : Gemder,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daily spillover of workday experience into couple interactio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1), 250-263.
- Vygotsky, L. S. (2009). *Ming in society : the development of higher mental process*. (Translation. Jeong, hoe-uk). Seoul : Hakyisiseup. (The original publication 1978).

2011년 12월 23일 투고, 2012년 3월 15일 수정  
2012년 3월 25일 채택